

즉시 배포용: 2019년 7월 31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 주지사, 비상요원에게 차에 남겨져 괴로워하는 동물을 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**

**Cuomo 주지사:** "뜨겁거나 차가운 차에 반려동물을 내버려 두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위험하기까지 합니다. 그리고 비상요원들은 필요할 경우, 이들을 차에서 내리게 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.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, 저는 동물의 안전과 웰빙을 보호할 수 있는 이번 조치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."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소방관을 비롯한 기타 비상 의료 요원이 차에 방치되어 건강이나 웰빙에 위협이 되는 환경에 있는 동물을 구출할 권한을 갖게 되는 법안(S.5054/A.7053)에 서명했습니다. 이번 법안은 반려동물이 위험에 처해 911로 응급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, 특히 사법 당국 또는 동물 관리국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장소나 시기에 대기 시간을 줄여줄 것입니다. 이번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.

**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** "뜨겁거나 차가운 차에 반려동물을 내버려 두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위험하기까지 합니다. 그리고 비상요원들은 필요할 경우, 이들을 차에서 내리게 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. 반려견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, 저는 동물의 안전과 웰빙을 보호할 수 있는 이번 조치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."

**Kenneth P. LaVal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** "응급 의료 서비스 요원과 소방관에게 극도로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차에 방치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, 우리는 대기 시간을 줄이고 무고한 동물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확보합니다. 이 새로운 법은 동물이 속수무책으로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요원의 수를 확대하기 때문에, 제한된 경찰 자원이 있는 곳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주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동물이 사망한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. 이번 조치는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에게 커다란 보호를 제공하며 동물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을 처벌할 것입니다."

**Fred W. Thiel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** "여름 기간 동안, 우리는 몇 분 만에 차량 내부의 온도가 치솟아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차량에 가둬두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듣습니다. 이 중요한 조치는 괴로워하는 반려동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크게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극심한

상황에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목숨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. 소방관 및 응급 의료 서비스(Emergency Medical Service, EMS) 인력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. 이번 법안을 통해 반려동물이 차량 내부의 극심한 온도로 인해 위협을 받을 때 우리 소방관들은 이러한 훈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"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